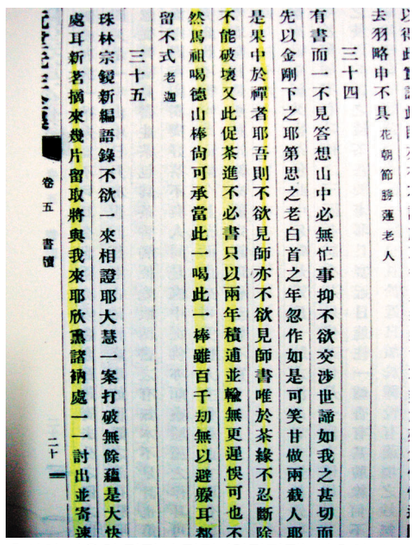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나는 간절한데 그대는 보리심 놓았나”

추사가 그의 편지에 사용한 호(號)는 활동 시기에 따른 변화와 관조, 성숙과 관심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엔 제주 유배시절, 그가 불교에 천착했음을 드러낸 노가(老迦)라는 호(號)를 사용했고, 〈〈완당전집〉〉〈여초의〉34신의 말미에도 노가라는 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제주 유배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제주 유배 시절 편지에는 초의에게 차를 재촉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천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병마와 싸우던 그가 차를 통해 얻은 위안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차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초의가 좋아하는 글씨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위협적인 강변(强辯)을 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걸명의 말 속에 담긴 그의 희언(戱言)은 천재다운 재기와 초의에게 보인 인간적인 신뢰가 함께 묻어난다. 〈여초의(與草衣)〉 34신에 드러난 걸명의 변은 다음과 같다.


卷五 書牘 二十一
三十四
有書而一不見答想山中必無忙事抑不欲交涉世諦如我之甚切而先以金剛下之耶第思之老白首之年忽作如是可笑甘做兩截人耶是果中於禪者耶吾則不欲見師亦不欲見師書唯於茶緣不忍斷除不能破壞又此促茶進不必書只以兩年積逋並輸無更遲悞可也不然馬祖喝德山棒尙可承當此一喝此一棒雖百千劫無以避
三十五
珠林宗鏡新編語錄不欲一來相證耶大慧一案打破無餘蘊是大快處耳新茗摘來幾片留取將與我來耶欣懃諸衲處一一討出並寄
留不式 老迦

추사의 서운한 감정이 담긴 〈완당전집〉 여초의34

편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중에는 꼭 (그렇게) 바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 세제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나처럼 (그대와 사귀기)간절한데도 먼저 보리심(금강)을 내려놓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늙은 나이에 갑자기 이처럼 하시니 우스운 일입니다. 둘로 갈라진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과연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인가요. 나는 그대를 보고 싶지 않고, 또 그대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차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 없고, 깰 수도 없어서 다시 차를 재촉하는 것이니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해 동안 쌓인 빚을 함께 보내고, 다시 지체하거나 빗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조의 할과 덕산의 봉을 오히려 받을 것입니다. 이 할과 이 봉은 설령 백 천겁이 된다하여도 감추거나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만 노가 (有書而一不見答 想山中必無忙事 抑不欲交涉世諦 如我之甚切而先以金剛下之耶 第思之 老白首之年 忽作如是可笑 甘做兩截人耶 是果中於禪者耶 吾則不欲見師 亦不欲見師書 唯於茶緣不忍斷除 不能破壞 又此促茶進 不必書 只以兩年積逋並輸 無更遲悞可也 不然馬祖喝德山棒尙可承 當此一喝此一棒 雖百千劫無以避

제주 유배시절 초의에게 차를 재촉
‘지체하면 마조의 할을 받을 것’
불교에 천착 호를 ‘老迦’로 사용

여러 차례 보낸 자신의 편지에 초의의 답신이 오지 않았던 듯. 퉁명스런 말투로 “산중에는 꼭 (그렇게) 바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 세제와 어울리고 싶지 않는”것인가. “나처럼 (그대와 사귀기)간절한데도 먼저 보리심(금강)을 내려놓은 것인가”라고 거듭 힐난하였다. 점점 늙어가는 사람이 취해야할 일이 아니며, 정말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걸명의 변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임이 분명하다. 차를 보내 달라는 그의 진심은 “오직 차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 없고, 깰 수도 없어서 다시 차를 재촉하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울화에 시달리던 제주 유배 초기, 그는 맑고 청아한 초의차(草衣茶)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하기에 초의에게 차를 재촉할 뿐 “그대를 보고 싶지 않고, 또 그대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 하지만 이들의 사이가 어찌 차로만 맺어진 인연일까. 초의가 그립고, 벗의 선미 가득한 위안의 편지를 기다리는 절절한 심정을 이리 드러낸 것이리라. 한편 초의가 보낸 차가 늘 충분한 것이 아니었음은 “두 해 동안 쌓인 빚을 함께 보내”라고 한 것에서도 분명하다. 지체되거나 빗나가면 마조의 할과 덕산의 봉을 맞게 될 것이고, 이 봉과 할은 백 만겁이 지나도 감추거나 피할 수 없다는 추사의 강변(强辯)은 차가 그만큼 절실한 물품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ww.shcandle.com

2014 신상품 삼 환 양 초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원빈’처럼 신세대 사로잡는 포교할 터”

신세대 행복론 전하는 SNS전법사 원빈 스님

불교계에도 ‘원빈’이 떴다. 커피 광고에 나오는 유명배우 ‘원빈’이 아닌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신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원빈 스님(圓彬 · 29)의 얘기다.

스님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법명을 지녔다. 사실 처음부터 스님의 법명으로 얘기를 꺼내는 것은 결례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는 스님의 인기를 설명할 길이 없다.

사실 원빈 스님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유명배우 원빈과 맞먹는 인기인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즉문즉답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 멘토로 떠오른 법륜 스님, 온라인 상에서의 교감을 시작으로 대중과 친숙해진 혜민 스님에 이은 신세대 전법사다.

SNS는 현대사회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일상의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각박한 현대인들에게는 부처님의 따스한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다.

차곡차곡 노력을 쌓으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너질수도 있지만 약점을 보완할 기회이기 때문에 더 튼튼해질 수 있죠.

멈추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한주도 당신 인생의 디딤돌 하나를 쌓아 올리도록

땀 흘리는 한주 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스님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5000여 명. 스님의 페이스북을 가보면 스님의 글 한 구절에 삶의 청량감을 얻은 이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 속에 불법이

원빈 스님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부터였다.

스님은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에 봉사활동을 갔다. 당시 스님은 아이들과 함께 명상프로그램 함께하고 해뜨는 것을 볼 예정이었다. 평소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올리던 스님은 베르베르 베르나르의 ‘웃음’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다.

“당시에 배터리가 10% 밖에 없어 글을 올리고 나니 곧 핸드폰이 꺼졌어요. 해뜨는 것을 보고 들어와 핸드폰을 켜니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댓글 친구추가가 500건이 넘게 들어와서 머가 잘못된지 알았죠.(웃음)”

페이스북에서 공감의 표시로 표현하는 ‘좋아요’의 경우 스님은 평균 300개 정도를 받던 것이 이날 하루에만 2만개를 넘었다고 한다. 스님을 알던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제 친구가 스님얘기를 해요’라며 스님에게 연락해왔다.

연령대마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관한 가벼운 유머일 뿐인데, 왜 이리 열광할까. 평이한 소재와 편안한 말투, 무엇보다 청정한 수행자인 스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중이 크게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하루에 100명을 넘어섰어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스님들의 말이 ‘먹힙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선 철저하게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해요. 일방적인 가치관의 주입이나 편향된 내용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스님은 그 이후부터 위트있는 글을 싣기 시작했다. 굳이 불교경전의 말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싣기 시작했다. 동영상 또한 적절히 활용했다.

“스님들은 대중의 ‘마인드 큐레이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놓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 또 그 길을 걷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죠. 불교 안에는 그런 가르침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래된 고전부터 재해석해 현대인들에 맞게 풀어내는 역할, 또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즐겁게 출가했습니다.

스님이 SNS를 통한 포교원력을 느낀 것은 오래되지 않는다. 사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스님이다. 2005년 동국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이던 스님은 ‘발렌타인데이’에 출가해 스님의 길을 걸었다.

젊디 젊은 스님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것이 ‘어떻게 출가하셨을까’가 아닐까.

“스님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습니까. 왜 출가하셨습니까.’라구요. 제답은 항상 간단해요. ‘그냥 출가했습니다.’라구요.”

막 스무살의 태를 벗은 청년이었던 원빈 스님이 출가의 이유가 있겠지만 스님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다.

“행자생활 때 많이 혼났습니다. 행자실에 처음가면 물어보는 질문이 ‘왜 출가했는지’에요. 그냥 출가했다고 하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웃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느냐’ 면서요. 그 이후로는 어른 스님들이나 대중들에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으로 출가했다고 하지요. 근데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닭살이 돋네요.”

출가 이후 은사 혜능 스님에게 받은 법명이 바로 원빈. 해나 달처럼 둥글게 빛나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반 스님들은 처음 법명을 듣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일단 상대방이 한번 웃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웃음이 있어야 해요. 한번 웃고 나면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또 잘 기억되기도 하구요. 은사 스님께서 정말 잘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빈은 연예인 중에 T.O.P 잖아요.(웃음)”

위트있는 글에 감동 담아 전해
페이스북 비롯 SNS서 인기
2005년 출가, 2010년 군법사지내
군장병 만나며 신세대 포교 서원

승가대서 대중설법 연구, 박사과정
‘SNS전법’ 불광전법상 대상 영예
‘쉬운말 · 공감형성이 포교에 가장 중요’
생활에세이 〈같은 행복 다른 하루〉 펴내

군법사 생활 중 포교원력 느껴

스님은 비구계를 받자마자 군법사로 갔다. 2010년 임관한 스님은 파주 1사단 11연대 호국백성사, 1사단 12연대 호국무선사, 의정부 306보충대 호국관문사 주지를 지냈다.

“비구계를 받자마자 예비교육에 들어갔어요. 은사스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필요한 짐 챙겨서 훈련 받았죠. 도착하자마자 하루 딱 쉬고 2달간 입대 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숨돌릴 틈없는 일정 속에 스님은 갑갑함을 느꼈다. 특히 군장병들의 힘든 고민을 들을 때 마다 마치 자신의 얘기처럼 공감됨을 느꼈다.

스님은 군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많다고 털어놨다. 첫째가 불자 비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2000만 불자라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군대 내에서 종교조사를 하면 50%가 무교, 50% 중에 다시 5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남은 25%에서 12.5%가 천주교, 12.5%가 불교인데 불교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선임이 불교라서’, ‘초코파이를 주니까’ ‘작업 안하고 잘 수 있어서’ 등으로 불교를 택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00명 중에 1~2명 만이 자신을 위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죠.”

스님은 더 큰 문제는 불자가 아닌 청년들이 불교를 배우고 싶더라도 불교와 문화적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법사 당시 장병들과 법회하는 모습. 스님의 부처핸섬 별명은 여기에서 나왔다.

청계천을 걷고있는 원빈 스님. 스님은 다양한 사진 · 동영상 · 글귀로 행복을 전달한다.